

# 황지우 초기 시의 대중문화 간접 현상 연구

강 석\*

1. 들어가며
2. 대중문화의 삽입을 통한 현실의 부정성 폭로
  - 2-1. 대중문화 수용의 목적
  - 2-2. 대중문화 수용의 양상
  - 2-3. 대중문화 수용의 의의
3. 결 론

## 국문요약

황지우의 시는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시다. 그의 초기 시는 형태 파괴를 통해 당대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런 사회 비판의 시에는 대중문화의 여러 요소들을 그대로 옮겨다 붙인 것이 많다. 신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당대 정권에 부정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대중문화를 여러 요소들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부정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황지우의 시에서 대중문화는 부정적 측면이 강한데 이는 당대 사회의 부정성의 무게가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감지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기법은 <시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시인 특유의 시 창작 방법론적 특성과, 당대 현실의 반영 그리고 브레히트가 주장한 소격 효과가 결합되어 있다.

---

주제어

\*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연구원

## 1. 들어가며

황지우는 이성복, 기형도 등과 함께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모더니즘시를 대표하는 문제적인 시인이다. 당대 사회의 모순을 강렬하게 비판하고 풍자한 그의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충격과 감동을 주었으며, 후대 시인에게 폭넓은 인용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20년 동안 다섯 권의 시집과 한 권의 조각 시집을 남겨 양적으로도 소홀치 않은 성과를 남긴 시인이다.

그의 초기 시에 두드러지는 수법은 형태 파괴를 통한 풍자를 들 수 있다. 황지우는 뒤틀린 언어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시대'를 풍자하여 큰 문학적 성공을 거두었다. 그가 이룬 또 하나의 공적은 현대시와 대중문화의 활발한 교섭에 있다. 1983년 나온 첫 시집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와 1985년에 나온 두 번째 시집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으로』에서 이런 모습이 주로 보이는데, 일반 서정시의 문법을 따르지 않고 대중문화를 차용한 자신만의 독특한 시문법에 따라 창작을 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런 창작 방법은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수많은 2차 텍스트를 양산하게 되었으며, 후에 유하나 오규원 등에게도 시 창작과 관련해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황지우의 초기시는 많은 평론가들이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른 이름표를 붙였을 정도로 복잡한 텍스트이다. 이광호의 지적대로 황지우는 '모더니즘', '형태 파괴', '해체주의'라는 일반적인 규정 외에도 '비판론', '낭만주의', '냉소주의', '신비주의' 등 많은 비평적 규정을 감당해야 했다.<sup>1)</sup> 이는 황지우 시가 가진 새로움과 낯설음이 주는 혼란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인 스스로

1) 이광호, 「초월의 지리학」, 『황지우 문학일기』, 웅진출판사, 1994, 70쪽.

밝혔듯이 이런 형태 파괴의 원리는 침묵을 강요당하는 폭압적 현실에서 침묵에 사다리를 놓는, 즉 다른 방법으로 대항적 현실을 말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황지우는 대중문화를 자신의 시 속에 자주 틈입시켰다. 이후 많은 작가가 이런 방법을 썼지만, 선구자격인 그의 방법론을 찾아보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의 텍스트가 여러 가지 비평적 규정을 감당해야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대중문화를 자신의 시 속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기에, 황지우의 초기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이런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초기 2권의 시집을 텍스트로 하여 대중문화의 정의와 시인이 대중문화를 수용한 목적과 양상, 그리고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대중문화의 삽입을 통한 현실의 부정성 폭로

### 2-1. 대중문화 수용의 목적

대중문화(mass culture)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인 연예 오락물, 화려한 흥행물, 음악, 책 영화 같은 대중적인 문화 산물이나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것은 대중매체(mass media)를 통하여 전달되는 통속적인 산물들이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통속적이고 가벼운 오락물이다. 대중매체의 발달과 대중 시장의 확대로 인해 현재에는 누구나 쉽게 각종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모든 문화가 모든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물질적, 시간적, 공간적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일부 정해진 문화만이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중문화인 뮤지컬은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시간적, 물질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판소리 등도

미국인들에게는 신비한 동양의 문화일 뿐, 전혀 대중적이지가 않다. 그러므로 당대 대중들이 가장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을 당대의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다. 즉 대중문화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변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대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당대 사회에서 “외모, 지적 수준, 재산, 사회적 지위 등과 관계 없이 신문, 라디오, 잡지, 텔레비전 그리고 온갖 종류의 전시회를 통해 누구에게나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sup>2)</sup>이다. 그러므로 대중문화를 논함에 있어 대중매체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대중문화는 대중매체를 통해 발신자로부터 수신자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문화를 정의함에 있어 민중문화나 민속문화와의 구별을 지을 필요가 있다. 대중문화와 민중문화를 구별짓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저항적 요소이다. 민중예술은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상징적 저항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민속문화라는 것은 즐기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분리된 생산자가 자신의 욕구와는 무관하게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제공하는 대중문화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sup>3)</sup> 이런 점이 저항되어야 하는 것은 대중문화의 범위를 대량성과 대중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 자본주의와 결합한 비민중성과 상업성을 탈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황지우 초기 시의 시대적 상황은 주로 1980년대이다. 이 시대는 독점자본주의의 발달과 신군부의 등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당시 신군부는 거대 대중매체기업을 통제하고 회유하여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대중문화에 전달하거나, 3S로 표현되는 향락 소비문화를 유포하여,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을 자신들 쪽으로 회유하거나 희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고도로 발달하기 시작한 자본주의를 통해 거대 대중매체기업은 이윤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대중들에

2)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1995, 33쪽.

3) 이해완, 「대중매체의 발전과 대중예술 정의의 문제」, 『미학』 제35집, 2003, 333-334쪽.

제 기준 권력의 가치관을 유포하였다. 그리하여 대중문화의 확산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들은 공기를 호흡하듯 대중문화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황지우는 현실 비판적인 자신의 시에서 당대의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서술했던 그 특성 때문이다. 대중매체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대중문화는 당대 국민들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늘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있듯이, 대중문화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인 것이지만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공기가 일산화탄소 등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없는 물질로 오염되어 있으면 그 공기를 마시는 사람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점차 죽어가는 것과 같이, 대중의 정치적 의식을 마비시키는 대중문화는 결국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중들을 권력에 동조하거나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든다. 이런 모습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인은 대중문화의 여러 파편들을 자신의 시 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시인 스스로 밝힌 것처럼 대중문화에 대한 항체로서 작용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대중문화는 민중이나 소시민들만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밝혔듯이 사회적 계급과는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쏟아지는 정보이다. 대중교육의 전파와 대중매체의 발전으로 엄청나게 확대된 문화시장의 존재와 함께 원칙적으로 어떤 종류의 문화라도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황지우의 시를 읽는 학생이나 지식인층에게도 대중문화는 전파되어 있으므로 독자들이 황지우 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 한결 쉬웠을 것이다. 수용의 측면에서도 대중문화를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있다.

## 2-2. 대중문화 수용의 양상

황지우가 대중문화를 시 속에 간접시키면서 자주 이용한 방법은 꿀라쥬이다. 꿀라쥬란 풀로 붙인다는 뜻으로 입체파 미술 작가들이 유화의 한 부분에 신문이나 벽지를 붙이는 방법에서 유래되었다. 즉 하나의 작품에 이질적인 재료들을 그대로 가져다 붙이는 것인데, 황지우 역시 자신의 시 작품에 대중문화의 여러 패턴들을 그대로 붙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쪼옥 빠라서 씹어주세요, 해태 봉봉 오렌지 쥬스 삼매권!  
더욱 커졌습니다. 롯데 아이스콘 배권입니다!  
오 머신는 남자 캐주얼 슈즈 만나줄까 빼빼로네 에스에스패션!

보성물산주식회사 종로 지점 근무. 34세의 장만섭씨는 산요 리시버를 벗는다.

「徐伐, 서불, 서불, 서울, SEOUL」부분, 제 1시집.<sup>4)</sup>

이 시는 대중문화의 대표적 산물인 라디오 광고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표준어의 문법에 맞추지 않고 발음대로 쓴 것은 광고의 속물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이다. 특히 ‘쪼옥 빠라서 씹어주세요’나 ‘더욱 커졌습니다’와 같은 것은 性的인 은유가 드러나 있다. 광고 속에서 성적인 은유를 사용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나 현실의 부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소재가 된다.

정치와 경제의 권력집단은 대중문화를 매개로 결합하여 행복이라는 숨사탕을 제공하므로, 자신들의 지배를 영속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대중매체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기초한 경제적 기업이며, 이데올로기를 생산,

4) 제 1시집은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제 2시집은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를 지칭함.  
이후 인용된 시는 각주를 붙이지 않음.

유포하는 이데올로기적 기제이다. 이런 대중 매체가 생산하는 수단 역시 사회 통제의 직접적인 수단이다. 국가는 법률의 규정과 이에 따른 억압적 국가기구를 통해 대중매체를 공식적으로 통제하며 필요한 경우 비공식 통제방법도 사용하였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직접 대중매체를 소유하여 운영 통제하였다. 특히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38 정책은 암암리에 이러한 것을 권장하여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무뇌아 상태로 만들고자 했으며, 실제로 대중 매체에서 보이는 관심도 암암리에 이러한 것에 많이 집중되었다. 80년 11월에 언론 통·폐합에 따른 「언론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대대적 언론인 해고 및 언론사 재편이 이루어졌다. 국가는 대중매체기업에 대해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보여주었고, 지방지 역시 1도 1사의 원칙 하에 언론 기업의 독점화가 확대되었다. 대중매체기업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스스로의 자율성을 축소시키고 권력의 지침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이 야합은 완성되었다.<sup>5)</sup>

하지만 대중들은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형식적 미명 아래 저마다 자신의 속물적인 삶만을 챙기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대중문화 범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개연적으로 속물적인 소시민이 될 가능성이 많으며, 실제 시에서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간밤에도 그는 외국 바이어들을 만났고, '그년'들을 대주고 그도 '그년들  
중의 한년'의 그것을 주물럭거리고 집으로 와서 또 아내의 그것을 더욱  
힘차게 전투적이고 더욱 야만적으로 주물러주었다.(중략)  
어찌구 저찌구 해서 오늘 장만섭씨는 미스 천가 챔가 하는 여자를 낮에  
만났고, 대낮에 여관에 갔다.(중략)  
그의 손에는 아들, 장일식(6세)과 딸, 장혜란(4세)에게 줄 이티 장난감이  
들려져 있었다.

5) 김승현, 「대중매체와 지배 이데올로기 재생산-1987년 노사갈등에 대한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과학』 12집, 1990. 1-7쪽.

이런 시적 진술은 결국 당대 현실의 부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다. 폭압적인 정치 현실에도 불구하고 속물화되고 있는 소시민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제시되는 듯한 모습을 통해 더욱 개연성 있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현실의 부정성을 직접 보여주되, 시인 자신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 사실의 보고라는 형식을 가지고 되므로, 겹열의 장벽에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TNT사제 폭탄을 들고 은행에 쳐들어간 청년은 자폭했고(중앙일보 9월 2일자).

술집 호스티스는 정부에게 알몸으로 목졸려 죽었고(한국일보 6월 15일자).

방범대원은 한밤에 강도로 돌변하고(경향신문 12월 7일자).

아들은 술 취한 아버지를 망치로 내려쳐 죽이고(서울신문 4월 11일자).

노름판을 덮친 형사가 판돈 몽땅 꼬불치고(MBC 라디오 12시 뉴스 7월 26일자)

「활로를 찾아서」부분, 제1시집.

이번 금융부정사건은 정부 고위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검찰 총장이 발표한 이상, 이번 대형금융부정사건은 정부 고위층과 아무런 관련이 없?

「벼라이어티 쇼, 1984」부분, 제2시집.

이 시에서 나타난 사건들은 대개가 공권력이 가하는 횡포가 드러나 있다. 청년이 자폭한 이유는 진압대원들이나 경찰들의 압박에 의한 것이고, 술집 호스티스가 정부(情夫)에게 목졸려 죽었다는 것은 조금 억지스러울지 모르지만 동음이의어 놀이로 정부(政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방범대원이나 형사

역시 공권력의 하수인들이다. 이 예 역시 현실의 부정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지만, 끌라쥬라는 형식을 사용하는 순간 이 진술은 시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겸열을 넘어갈 수 있는 미학적 장치가 된다. 두 가지 이상의 소재가 각각의 개성을 유지하며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질 때 각각의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넘어서 강력하며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게 된다. 이 시에서도 각각의 기사는 당시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지만, 이것들이 모여 하나의 시로 모아질 때, 당대 사회의 부정성을 확대해 보여주는 역할과 함께 그 부정성의 근원이 권력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시적 화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겸열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부정한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시 외에 흔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대중문화의 흔적들을 그대로 보여줌으로 독자들에게 낯설게 하는 방법도 있다.

라디오 아나운서와 해설자는 혀를 차면서, 중계하고 훈계한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교육의 연장입니다. 학생 야구에 성인들이 저런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십니다. 스포츠 정신이란 게 뭐니까? 룰에 대한 절대적 복종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경기는 일단 중단됐습니다만, 아 지금 경비원들이 외야 쪽으로 가고 있군요.

『5월 그 하루 무덥던 날』 부분, 제1시집.

김종수 80년 5월 이후 가출

소식 두절 11월 3일 입대 영장 나왔음

귀가 요 아는 분 연락 바람 누나

829-1551

『심인』 부분, 제1시집.

8617번 차원옥은 동생을 찾습니다.

동생은 차원실 육십칠세(67) 별면은 세채

고향은 평북 영변군 팔원면 석성동

해방 전에 고향을 떠났음

「벽3」부분, 제2시집.

처음 인용된 시에서는 경북고와 광주일고의 고교 야구 경기에서 운동장으로 난입한 사람을 비판하는 말이다. 우리가 저 말을 라디오에서 들었다면 별 관심 없어 하거나, 같이 혀를 차고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활자화되는 순간 우리는 저 말 속에서 정치적 의도를 감지하게 된다. 야구 자체가 정치적 관심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당연히 성인들을 위한 오락거리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감정을 조장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의도는 감춘 채 단지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이라고 말해, 난입한 사람을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다. 또한 룰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정권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불허하겠다는 당시 정치 세력의 담론이 섞여 있다.

「심인」은 신문에 사람을 찾는 광고를 말한다. 이 광고 역시 신문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숫자에 유의해서 보면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실종된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벽3」은 1980년대 중반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이산가족 찾기 운동과 관련되어 있다. 당시 분단에 의해 생이별을 했던 사람들은 생활고 등 여러 이유 때문에 30년 가까이 서로를 찾을 만한 여유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국영방송에서 전국적으로 행해진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 상봉의 기쁨을 맛보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 방송은 가족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헤어진 상황을 적은 피켓을 들고 방송국에 나가면, 방송을 보는 사람이 방송국으로 연락하여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벽3」은 방송 중의 피켓들을 그대로 옮기는 형식으로 시 전체가 구성되었다.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들은 이산가족들의 상봉으로 보고 기뻐하기도 했고, 같이 울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산가족의 상봉이라는 거대한 이벤트를 전국적으로 중계하여, 사람들로 감상성에 매몰되게 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다. 대중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감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sup>6)</sup>. 하지만 이 시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사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방송국이 의도하는 것과는 달리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더욱 강조한다. 독자는 전국적으로 공개되는 장소임에도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을 쓴 것을 통해 그 패켓을 제작한 사람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지게 된다.

위의 세 시들은 모두 대중매체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전파되는 것들을 작가의 의도에 따라 오려붙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 대중문화를 끌라쥬한 이런 형식은 독자들을 낯설게 한다. 독자들은 이런 시를 보면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려 노력하고, 최종적으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음 시는 드라마의 대본과 화장실 낙서를 병치시켜 놓은 것이다.

길중은 밤늦게 돌아온 숙자에게 편장을 주는데, 숙자는/하루종일 고생한  
수고도 몰/라주는 남편이 야속해 화가/났다. 혜옥은 조카 창연이/은미를  
따르는 것을 보고 명/섭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나누게 된다. 이모는 명섭  
과/은미의 초라한 생활이 안쓰/러워.....

어느 날 나는 친구집엘 놀러/갔는데 친구는 없고 친구 누/나가 낫잠을 자  
고 있었다./친구 누나의 벌어진 가랑이/를 보자 나는 자지가 꿀렸/다./그래  
서 나는.....

6) 박성봉은 『대중 예술의 미학』에서 감상성은 대중 예술의 통속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박성봉, 앞의 책, 1995, 354~361쪽.

신문 방송 면에 실린 텔레비전 드라마 소개와 역전 화장실에나 써 있을 선정적인 낙서의 병치를 통해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시 전체를 하나의 병치 은유라고 본다면 이 둘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즉 드라마 속의 현실과 화장실 낙서의 현실은 모두 허무맹랑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병치은유는 병렬과 종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성시킨다. 영화감독 에이젠크타인은 그의 영화이론에서 쇼트 A와 B가 합쳐지면 AB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C가 창조된다고 했다.<sup>7)</sup> 이 시 역시 상이한 소재의 병치를 통해 새로운 내용, 즉 곁으로는 실제 현실과 비슷하게 보이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사실은 속물적이며 당대 현실과 괴리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황지우의 시에서 대중문화가 당대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만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시에서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대중문화의 인용으로 처리해 놓은 것도 있다.

‘나의 조국’ 합창하며 투쟁 다짐.

PLO 떠나는 날 ‘우리는 조국 땅에 다시 온다.’

꺼지지 않은 채 흘어진 ‘불씨’,

『베이루트여, 베이루트여』 제1시집, 부분.

이 시는 이스라엘에 쓰겨 조국 땅을 떠나는 팔레스타인 민족의 비극을 그려놓은 작품이다. 이스라엘의 침략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이 시에서는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부분을 써 놓고 있다.(통곡의 벽 안쪽은 그 벽 밖의/

7) 이효인, 『영화 이야기 주머니』, 녹두, 1993, 169쪽.

통곡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므로 보기의 인용 부분은 시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왜냐하면 시인에게 대중문화는 당대 현실의 부정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대중문화는 기본적으로 현실 변혁이나 현실 비판의 의식을 표면에 가지지 못하게 된다. 특히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대중문화는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거나, 순수한 오락성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시인 역시 현실을 왜곡하고 진실 앞에서 침묵하는 대중문화에 긍정적 측면을 찾지 못하였다. 더구나 현실의 부정성이 극에 달한 1980년대의 상황에서 대중문화가 가진 이러한 특성은 시인이 대중문화를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중문화를 포함하지 않는 여타의 시에서도 현실의 모습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 쑥밭의 땅에서  
괴로워하는 쑥굴형 가시 덩굴 헤치고  
『만수산 드렁칡 2』제1시집, 부분.

山 전체가 끄뚱이다  
『만수산 드렁칡 4』제1시집, 부분.

여기는 초토입니다.  
그 우에서 무얼 하겠습니까  
『에프킬라를 뿌리며』제1시집, 부분.

현실은 “가시 덩굴”이며 “산 전체가 끄뚱이”며 “초토”이다. 이런 현실은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sup>8)</sup> 모습이다. 역사적인 비극을 암호화하여 전달해야

8) 황지우, 『만수산 드렁칡』,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문학과지성사, 1983, 21쪽.

하는 정치적 상황과 그런 폭압적 정치 상황에서 아무런 반성 없이 속물적으로 사는 소시민들의 모습은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든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런 현실을 철저히 부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 속에서 진실의 전달을 포기해버린 대중문화 역시 부정의 대상이 된다.

### 2-3. 대중문화 수용의 의의

황지우가 대중문화를 시 속에 수용한 것은 자신의 시 창작 방법과 연관이 있다. 부정적 현실을 표현하기 위한 대중문화의 여러 패턴을 끼워 넣은 방법의 근거는 시집과 산문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호』에서 찾을 수 있다. 황지우는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으로』에 수록된 「버라이어티 쇼, 1984」라는 시 말미에 “시를 언어에서 출발하지 말고 <詩적인 것>의 발견으로부터 출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써 놓았다. 시적인 것이란 우리에게 모든 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장이지만, 그 바깥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시적인 것을 찾는다는 것은 전통적인 시의 영역을 확장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대중문화를 꿀라쥬한 방법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시인은 한 대담에서 시계를 예로 들면서 <시적인 것>에 대한 존재론적 증명을 하였다.<sup>9)</sup> 대중문화의 패턴들을 시 속에 적극적으로 삽입한 시도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는데, 시인은 이를 활용함으로 <시적인 것>을 새로 발견하게 된다. 대중문화의 여러 혼적들이 시에 본격적으로 틈입할 수 있는 기초를 쌓은 것이고, 이는 후대 다른 시인에게도 계속 계승된다.

9) 「시적인 것은 실제로 있다」에서 소개된 대담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순복: 그런데 발표자는 그 <시적인 것>이 시 바깥에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황지우: 물론입니다.(중략) 그 부품들이나 기계장치들은 서로 물질적 조건은 달라도 ‘시계적으로’ 고안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 ‘시계적인 것’은 물시계 안에도 벽시계 안에도 전자시계 안에도 있지만 그것들 밖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새로운 종류의 시계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지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호』, 한마당, 1987, 231쪽.

1980년대는 광주의 유혈로 문을 연 시기이다. 그만큼 정치적인 시기였고, 본격문학 역시 정치성을 지향하는 시와 소설의 르네상스를 이루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대중들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프로야구에 열광하였으며, 여자 배우가 헐떡이는 모습의 살색 간판이 궁전 대문같이 걸린 영화관에 몰려들었다. 이런 모습은 당대 사람들의 일상적 모습이었고 정치적 의식이 있는 사람도 대중문화에 깊이 침잠되어 있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더 타임즈(The Times) 같은 고급 신문을 읽는 사람도 30% 이상이 대중적 타블로이드 신문을 읽고 있었다. 반대로 대중적 타블로이드 신문을 읽는 사람의 20% 이상이 고급 잡지를 읽고 있었다. 소비의 측면에서 볼 때 고급문화와 통속문화 사이에는 큰 구별이 없었다.<sup>10)</sup> 우리 역시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볼 때, 이런 현실에서 대중문화의 모습을 본격문학 속에 차용한 황지우의 시 창작은 당대 사회를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우리가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당대 사회의 현실과 조우하고자 하는 목표도 있다. 작품 속의 명제적 표현으로 당대의 부정성을 파악하는 것도 가치가 있겠지만, 황지우와 같이 방법론적으로 대중문화를 작품 안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당대 사회의 현실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런 방법은 소격(疏隔) 효과와도 관련성이 있다. 시인은 파괴를 양식화함으로써 침묵에 사다리를 놓는다고 산문집에서 표현했다.<sup>11)</sup> 기존 시 형식에 대한 양식화된 형태 파괴는 브레히트가 노린 소격 효과와 공통점이 있다. 김길웅(1996)에 따르면 브레히트는 “소격을 야기하는 묘사란, 대상을 인식하게 해주되, 동시에 대상을 낯설게 보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2)</sup>라고 하였다. 즉 낯선 시적 표현을 통해 독자들 스스로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찾게 하는

10) 박성봉, 앞의 책, 1995, 63쪽.

11) 황지우, 앞의 책, 1987, 25쪽.

12) 김길웅, 「낯선 형식을 통한 현실 드러내기-브레히트와 황지우의 시의 기법을 중심으로」,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제 2집, 1996, 9쪽.

것이다. 황지우도 스스로 나중에 브레히트의 소격 효과와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하여 볼 때 황지우의 시가 목적하는 것은 형태의 파괴가 아니라, 형태의 파괴를 통한 현실의 전달이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격의 목적은 현실의 해체가 아니라 부정한 현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론이기 때문이고, 황지우의 시 역시 그러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창작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전략은 성공하여 황지우의 시는 당대 현실의 부정성을 검열의 장벽을 넘어 효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 3. 결 론

대중문화를 시 속에서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새로운 시도였다. 특히 대중문화의 부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대 현실의 부정성을 파헤치기 위한 것이라 더욱 가치가 있다. 대중문화란 대중매체를 타고 당대 대중들에게 전방위로 전파되는 여러 문화적 현상이다. 황지우는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시 속에 간접시켜 당대 현실의 부정성을 폭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끌라쥬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중문화의 여러 흔적들을 자신의 시 속에 ‘그대로’ 집어넣었다. 아쉬운 점은 대중문화의 여러 요소들이 현실의 부정적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론의 의의는 당대 검열을 넘기는 효과 이외에도 시인이 주장했던 <시적인 것>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정치적 텍스트와 대중문화가 동시에 범람했던 1980년대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격효과를 통해 현실의 부정성을 전달하고자 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 참고문헌

-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문학과지성사, 1983.
- \_\_\_\_\_,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으로』, 민음사, 1985.
- \_\_\_\_\_,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호』, 한마당, 1986.
-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1.
- 박성봉, 『대중 예술의 미학』, 동연, 1995.
- 이남호·이광호·임동화 외, 『황지우 문학앨범』, 웅진출판사, 1995.
- 이효인, 『영화 이야기주머니』, 녹두, 1993.
- 김길웅, 「낯선 형식을 통한 현실 드러내기—브레히트와 황지우의 시의 기법을 중심으로」, 『브레히트와 현대 연극』 제2집, 1996. 9쪽.
- 김승현, 「대중매체와 지배 이데올로기 재생산-1987년 노사갈등에 대한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과학』 제12집, 1990, 1-7쪽.
- 이해완, 「대중매체의 발전과 대중예술 정의의 문제」, 『미학』 제35집, 2003, 333-334쪽.



## Abstract

### A Study on Hwang Ji Woo's Early Poetry

Kang, Seok

Poetry of Hwang Ji Woo have represented in the Modernism of Korean poetry since 1980s. Most of his early poem satire about those day by broking formality. These poetry of social criticism use element of mass culture. In some case, It quote newspaper to show the government vice, to expose something negative in diverse mass culture. poetry of Hwang Ji Woo tell about vice of mass culture, because mass culture has too negative to perceive something positive. These technique of the poet combine creation methodology searching art as poetry, reflect the society and estrangement effect insisted by Bertolt Brecht.

---

#### Key Words

Mass culture, Mass media, Collage, Social criticism, Estrangement Effect

\* 위 논문은 2005년 11월 7일 투고되어, 11월 28일 심사 완료 후, 12월 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